

## 베드로가 졸았다고?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4:32~42]

아주 옛날, 영국 여왕이 외교사절이 모여 있는 공식 석상에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여왕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소리가 나자마자 옆에서 호위하고 있던 장교가 꿇어 엎드려서 손이야 발이야 비는 말이 “폐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 버린 겁니다. 끼고 누가 끼고요? 여왕님이 뀌었어요. 그 이후에 이 장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죠? 높은 사람의 실수는 어떻게든지 감추어 주는 게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분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여왕님이 체신도 없이 그게 똥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 장소를 벗어나서 “세상에, 우리 여왕님이 있잖아~” 하고 떠돌고 다니면 모가지 감입니다. 높은 분들의 이런 실수, 어른들의 이런 실수나 창피한 일은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즈음은 민주화되고 좋아져서 괜찮지, 임금님이나 높은 고관의 잘못을 떠돌고 다니면 신변이 위태로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이나 다름없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사로 봐서 그렇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높은 어른이고 얼마나 존경해야 할 어른입니까마는 그 어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 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의 조상이며,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분이 실수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분들이 한 국민의 조상들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기록 안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졸았다는 이야기나, 베드로가 선생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함부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덮어주고 감추어야 할 이야기를 덮어주기는커녕 더 자세하게 전해 줍니다. 참으로 이상한 기록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실수를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 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나 싶어 데리고 간 제자 셋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랐던 제자들은 도움은커녕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던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기가 찬 일이었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찾아 오셔서 깨웠어요. 깨워 놓고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 보니 또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만큼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옆의 형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나누지 못하면 이거 형제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탈무드의 답은 한 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봐라. 옆의 아이가 같이 울면 하나고, 애는 뜨거워서 울고 있는데 옆의 아

이가 웃고 있다면 그것은 놀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같이 아프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요,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전부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는 깨워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졸음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조는 사람도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아요. 저도 잘 졸거든요. 졸다가 깨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덜 하잖아'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제자들이 왜 졸았느냐 하면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합니다. 피곤해서 존 것이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종의 우스개인데 몸무게를 근으로 달면 한 100근 쯤 되나요? 60kg 안팎이면 한 100근 쯤 된다고 보시면 되죠. 100근 되는 여러분의 심장 무게가 얼마죠? 낚센스 퀴즈입니다. 네 근이 정답입니다. 좀 작네요 그죠? 왜네 근 밖에 안 돼요? 두근두근! 저는 두 근 반 세근 반이라서 여섯 근입니다. 실제로는 반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눈꺼풀은 몇 근이에요? 천근만근이라서 만 천근이랍니다. 눈꺼풀 무게가 만 천근이니 꺾이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SFC에 전해 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 때 주제가 '주의 솟불을 내 입술에'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뜨거운 솟불로 죄 많은 입술을 정하게 하소서 라는 겁니다. 그 때 졸음이 대단히 많았던 어느 위원 한 분이 잠 때문에 대형 실수를 3건이나 했어요. 그 중에 2건만 이야기할게요. 수양회 마지막 날에 표제 제창이라는 것을 했어요. 한 사람이 먼저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은 따라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주의 입술을 내 입술에!' 얼핏 들으면 무슨 소린지 잘 몰라요.

이 분이 행한 실수 중에 큰 것은 사회를 보다가 "설교자가 나오실 때까지 통성 기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자리에 가서 졸았던 겁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통성 기도가 너무 길어요. 사회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졸다가 엉겁결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런 수련회 가면 5박6일 중에 2박 또는 3박 정도는 잠 안 자고 일을 하니깐 잠 때문에 벌어진 실수는 굉장히 많죠. 피곤해서 벌어진 실수니까 도끼는 뜨고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를 찾아 오셔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별 재미도 없는 것을 듣고 있으면 잠 오는 게 정상이죠? 웬만하면 한 5분만 졸아 버리면 그 다음 나머지는 잘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졸리시거든 조금 주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좀 조는 것 뭐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고 너무너무 피곤하니 졸았답니다. 이해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기록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야 되나요? 누가 한 짓이에요? 이 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글이 기록되던 당시의 베드로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앓은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졸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오래 전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로마 교황은 거의 신이에요, 신! 제 기억으로 1980 몇 년도 인 것 같은데 그 때 교황님이 앉으셨던 방석 1개가 제 기억으로 30만원에 팔렸어요. 한 번 깔고 앉았던 방석이요. 80년도에 30만원이면 돈이 얼마정도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자는 10배 정도 더 나갔을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교황님보다 더 할

걸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길 가에 눕혀 놓고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흥을 이렇게 마음 놓고 봐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흥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흥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군가? 꼭 한 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 하지는 않아요. 꼭 한 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어른이라도 부끄러운 일, 허물 등을 빼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옛날에 좀 바보스럽다 해도 훗날 크게 되면 바보스러웠던 이야기 다 물어 버립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 흥을 볼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께 털어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쫓아가서 합부로 얘기 하나요? 이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본 느낌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가 봐요. 살살 의논하다가 직접 말 못하고 저에게 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도 말을 잘 못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담임 목사님 급이 아니에요. 거의 교황 급이잖아요. 그런 분의 잘못을 이렇게 합부로 했다는 것은 신기한 일에 가까워요. 졸았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배반했는데 보통 배반한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이야기 해 놓았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그의 양 아들이나 다름 바 없는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았다는 사실은 마가가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알죠? 예수님 알고, 졸았던 제자 셋은 알죠. 이들 중에 누가 발설을 했을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발설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얘기를 했기에 마가가 알고 이것을 자세하게 써 놓았을까요? 베드로가 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적어 놓아도 괜찮죠? 본인이 한 이야기는 이렇게 적어 놓아도 괜찮습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선조들도 많은데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 했습니까? 진짜 총칼 앞에서 두려워서 부인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좀 하겠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까?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그랬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형편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의 출처가 전부 베드로 자신이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그것을 다 기록해서 교회에 풀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을 누가 쓰셨다고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게 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거예요. 마가가 썼으니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가 썼으니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마가나 마태나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그것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그 원고를 대통령이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썼을까요? 다른 분이 썼을 가능성이 많죠. 누가 써 주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써 주었던 간에 그것은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고, 대통령 뜻대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마태가 썼든, 마가가 썼든, 누가 썼든, 요한이 썼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인 글이라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아무리 위대한 어른이고 큰 어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눈치 봐 가면서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도 잘잘못을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 예외가 극히 적어요, 거의 모든 인물은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어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흠을 잡으라고 하면 제가 잘 잡습니다. 제가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

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큰 병실 서너 개가 연결되어 있는 큰 병동인데 대학 나온 사람이 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작대기 두 개 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 일병, 명상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도 대학 나온 네가 이것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공부 많이 한 것이 존경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면 고참들이 뭐라고 불려요? ‘먹물’입니다. 공부 많이 한 졸병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먹물. 가방끈 좀 길다고 까불고 있어.” 이러거든요. 상병, 병장, 하사들 죽 있는 곳에서 명상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야, 차라[그만뒤].”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망신당할 게 뻔한 데 왜 합니까? 그런데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든 게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들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무리 선임들이라도 들을 것 아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시작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어떤 임금님이 왕궁에 올라갔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 본 겁니다.” 잘 들데요!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누워 빌빌거리다가도 벌떡 일어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다윗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날 잘 마쳤어요. 그 다음날 또 뭐 없냐? 찾아보니 있어요. 그래서 흥분만한 이야기만 찾는데 참 많아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다 잘 들어요. 그렇다고 흥만 볼 수는 없잖아요. 흥잡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매듭짓는 것, 이걸 잘 했어요.

얼마쯤 하면 밀천이 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몇 달이 가도 밀천이 안 떨어져요. 끝도 없이 나와요. 제가 원래 남의 흥 잘 보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겁니다. 성경에는 망측스러운 이야기도 참 많아요. 왜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의 허물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를 보여 주는 것이죠.

요약하면 성경은 사람을 보여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베드로 보세요. 성질 급하죠? 생각 없이 나서기 좋아하죠? 말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읽어야 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잘 한 번 보세요. 간혹 이런 사람 있어요. “성경?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밤에 베고 잔다네요? 성경을 베고 자면 머리가 그렇게 맑아진답니다. 한 번 해 보실래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베고 자려면 두께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은 상관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 영화 보면 성경을 귀신 쫓는데 사용하던데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를 읽는 ‘왕자와 거지’ 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하고 거지하고 따로 살았는데 이 두 아이의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요.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마주쳐서 둘의 얼굴이 비슷하니까 “우리 서로 옷 바꾸어 입고 놀아보자.” 바꾸어 입고 놀다가 경호원한테 들켜서 한 놈은 쫓겨나고 한 놈은 궁으로 모셔 가버렸어요. 그런데 궁으로 들어간 아이는 겉모습은 왕자인데 실제로는 거지예요. 쫓겨난 아이는 복장은 거지인데 실제로는 왕자예요. 그래서 둘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쫓겨난 왕자가 궁으로 돌아오는데, 왕궁 안에 있었던 원래 거지는 신하들이 ‘우리 왕자님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 이상한 짓만 자꾸 하니까. 그럼에도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대관식을 하려는 그 장소에 정말 온갖 난관을 다 극복하고 진짜 왕자가 나타나요. 생김새는 진짜 똑 같아요. 신하들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진짜 왕자가 누군지 가려내자. 그래서 시험을 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 치죠? 옥쇄를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옥쇄가 어디 있는

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을 진짜 왕자로 하겠다고 합니다.

거지 모습을 한 왕자가 어디어디 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신하가 뛰어갔다와서 없더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놈, 쫓아내라.” 이러는 판에 이 거지꼴을 하고 있던 진짜 왕자가 가짜 왕자한테 “야, 네가 치웠지?” “뭐 말입니까?” “임마, 그 호두 까먹던 것 있잖아.” 거지하고 왕자하고 들어서 호두 까먹는다고 옥쇄가지고 때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자가 쫓겨 나가고 거지만 남아 있으니 혼자서 옥쇄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진짜 왕자인 거지가 “야, 그 때 호두 까먹었던 그것 어디 감추어 놓았어?” 하니 어디어디에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판별이 나서 쫓겨났던 진짜 왕자가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러면서 끝나요. 소설입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이들 동화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옥쇄가 두 가지 용도를 가졌어요. 하나는 호두 까먹는데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왕자인가를 분별해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옥쇄를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이 옥쇄로 맨날 호두만 까먹고 있으면 이걸 영원히 거지예요.

자, 돌아옵시다. 성경책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품 잡는데 쓰거나, 갖다 꽂아 놓는 데 쓰거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좀 더 좋은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애편지라고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느끼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책 중의 한 권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쇄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단수와 복수를 전부 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 개역 성경이 정확합니다.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귀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당에 가면, 요즈음 말로 하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읽어 주십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단수입니다. 읽어 주면 청중들이 거기서 다 들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복수예요.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책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들고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흔적인데 개역개정 성경이 복수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단수로 해 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던 부분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성경책? 1인당 몇 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한 대여섯 권 됩니다. 교회 책상 위에 항상 두 권은 펴져 있습니다. 연구용과 예배드릴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글자가 큼직하게 한글로만 된 성경 따로 있어요, 그 너머에 심방 갈 때만 가지고 다니는 지갑 달린 성경책 따로 이렇게 3권이고, 컴퓨터 2대에 각각 성경이 들어 있고, 집에 가면 또 몇 권 있죠, 권수로 치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으면 뭘해요? 호두나 까먹고 있으면 참 슬픈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열어 놓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풍부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약장수 하는 말 한 번 할게요. ‘알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말씀 잘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깊이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